



우리 고을
거창
이야기

취우령과 선화공주

신중신 글 | 송진욱 그림



거창군문학도시추진위원회

우리 고을 거창 이야기

취우령과 선화 공주

찍은날 2013년 12월 20일

펴낸날 2013년 12월 25일

지은이 신중신

그린이 송진욱

펴낸곳 거창군문학도시추진위원회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99

전화 055-945-0015

팩스 055-945-0016

제작 (주)우리글

이 책은 거창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을 거창 이야기

취우령과 선화 공주

신중신 글 | 송진욱 그림



거창군문학도시추진위원회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세계 곳곳에는 예부터 그 지방에서 살아온 이의 입과 귀로 전하여지는 전설이나 설화가 있어서 세상살이의 재미를 풍성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들이 겨레의 혼을 더욱더 잘 지켜 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고장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스스로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해 줍니다. 나아가 거기에 담긴 내용은 모름지기 삶의 바른길을 가르쳐 줌으로써 후손들에게도 올곧은 품성을 갖게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고장 거창에도 옛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 공주’에 관한 슬픈 이야기가 으뜸이 될 만하겠습니다. 그것은 아홉산과 그 중의 한 봉우리 취우령에 얹힌 이야기입니다.

선화 공주는 백제의 서동을 만나러 가기 위해 두 나라의 국경 지대인 거창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옛날 거창 고을이 신라와 백제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는, 지역적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 신라 서라벌 궁성에 살던 선화 공주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는 인연 설화가 덧붙여져 매우 예스럽고 감칠맛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취우령에 얹힌 이 재미난 이야기를 읽고 역사의 한 자락에 자리한 거창의 산과 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옛이야기를 전하여 준 우리 고장 선대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2013년 12월

신중신





거열에 찾아온 선화 공주 8

쫓겨난 공주 · 외숙부와의 만남 · 평화로운 마을



- 거열산성 · 살기 좋은 거열 · 사람들의 관심

사랑 찾아 천 리 길 36

마를 캐는 아이 · 못에서 나온 남자 · 미륵산에서의 다짐



- 온달 장군과 평강 공주 · 승려로 변장한 서동
- 국경을 넘어 신라로

서동을 만난 선화 공주 60

진평왕의 세 딸 · 첫 만남 · 단오에 다시 만난 두 사람



- 머리꾸미개를 건네다 · 노래를 지은 서동
- 도성 안에 울려 퍼진 노래 · 진평왕의 분노
- 궁성을 나온 선화 공주

아홉산의 비 102

몸져누운 선화 공주 · 아홉 산을 넘지 못하고

- 취우령에 깃든 애달픈 사연





거열에 찾아온 선화 공주





거열이란 고장은 산으로 에워싸인
무척이나 아늑한 분지입니다.
서쪽에서 동으로 내가 흐르며,
고을 하류 쪽으로 넓은 들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넓은 들녘을 이곳 사람들은 ‘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농산물이 두루 풍부하다 보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예부터 살 ‘거居’ 자를 붙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쫓겨난 공주

어느새 해가 뉘엿해졌습니다. 소나무 가지 끝마다 하얀 두루미들이 한가롭게 앉아 있는 솔밭을 지나는 동안 해가 설핏해졌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희미하게 보이던 낯달이 하늘이 어둑해지자 그 모양을 더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좀 쉬었다 갈까요?”

걱정이 되는지 미아가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아기씨는 생김새가 놀랄 만큼 아름 다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가씨는 바로 신라 진평왕의 셋 째 딸 선화 공주였습니다. 선화 공주는 긴 시간 동안 걷느



라 지쳐서 그런지 얼굴에 피로가 살얼음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떠나올 때 비하면 눈에 띄게 생기를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선화 공주는 미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대꾸를 했습니다.

“서쪽만 바라보며 이렇게 오긴 했지만, 과연 저 나라로 넘어갈 수 있을는지……. 미아야, 저 새들은 고갯마루를 넘어 제 집 문턱 드나들듯이 국경을 오갈 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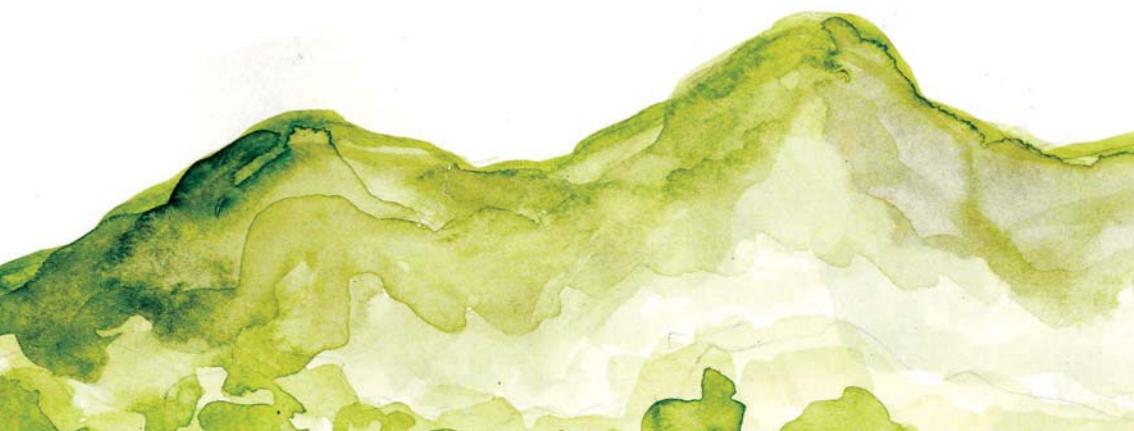
“날개가 있으니 그럴 것이옵니다.”

쉬 맞장구를 쳤지만, 그게 공주마마의 마음을 더 애달프게 한 것 같아서 미아는 그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새들이 부럽구나! 저 미물의 처지가…….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다니…….”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옵니다, 공주마마.”

“궁중에서 쓰던 말을 또 입에 올리는구나. 아기씨라 부



르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궁을 떠난 다음부터 나는 이 미 공주가 아니야. 그렇게 부르는 건 아바마마의 명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고…….”

여기는 국경 지방이어서 더욱더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판에 미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숙부와의 만남

선화 공주가 서라벌 신라의 수도 을 떠난 지 벌써 스무 날이 지났습니다. 도중에 고령부에 들러 한때는 대가야국의 중심 고을이었던 곳을 맡아 다스리고 있는 외숙부를 잠시 뵙긴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헤어진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대아찬인 외숙부도 선화 공주에게 일어난 지난 일에 관

대아찬 : 신라의 다섯째 관등으로 '아찬'보다 지위가 높다. 대아찬부터 화백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진다.

해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화 공주가 선택한 이 길 또한 이해해 주는 듯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게지. 공주에게 벌어진 일이 어디 꿈에서라도 일어날 법한 일인가 말이오. 어쨌거나 백제와의 사이가 여전히 틀어져 있으니, 그게 공주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듯해 마음이 아프오. 그저 부처님의 공덕이 닿기만 바랄 따름이오.”

외숙부는 혀를 끌끌 차면서 백제와 신라가 이처럼 사이가 틀어지게 된 까닭을 선화 공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선대왕이었던 진홍왕^{제24대} 신라 왕 때 일은 공주도 알 것이오. 북쪽에 있는 고구려는 힘이 강대해 자주 남쪽 국경을 넘보고는 했소. 특히 한강 유역은 땅도 비옥하고 여러 가지 작물이나 물품도 풍부한 곳이었소. 그 무렵에는 백제 영토였던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다오. 위기감을 느낀 신라는 백제와 화친을 맺지 않았겠소? 바로 ‘나제신라·백제 동맹군’이지. 나제 동맹군은 힘을 합쳐 한강 하류의 여러 성읍들을 탈환했소. 그런데 당시 신라 입장에서는 한강 유역을 백제와 나눠 가질 수가 없었소.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자 백제는 이를 몹시 분하게 여겼다오. 그래서 백제 성왕이 군사를 일으켜 당장에 신라로 쳐들어왔지.”

외숙부는 거기까지 말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었습니
다. 뒷이야기를 마저 끝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신라의 편이었나 보오. 신라군은 관산
성에서 백제군과 겨루 대승을 거두었고, 성왕은 그 싸움에
서 전사를 하고 말았다오. 그 뒤 신라는 승승장구하여 변
한의 옛 땅을 완전히 통합시켜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하였
지. 그렇게 함으로써 고구려, 백제와 더불어 삼국이 어깨
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라오. 하지만 그로 인해 백제와는
지금처럼 사이가 크게 나빠졌소. 한때는 동맹까지 맺은 관
계였지만…….”

선화 공주도 증조부인 진흥왕 시절의 역사를 공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지금처럼 막강한 신라가 되
도록 나라의 기틀을 세운 진흥왕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숙부가 전하는
말을 듣고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아, 왜 나의 낭군은 적국 백제 땅에 살고 있는 걸까?’
진주같이 맑고 고운 선화 공주의 뺨이 절로 향쑥해졌습니다. 그 예쁜 눈에 한 가닥 근심이 스치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외숙부가 그런 선화 공주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위로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의 형편으로는 국경을 무사히 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일 테지. 그 서동이란 공자가 백제의 수도인 부여에 있다고 하니 말이오. 이대로 계속 서쪽을 향해 가면 거열이란 고을에 닿을 것이오. 부여에 가려면 그 고을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오. 거기서 잘 살펴보고 국경을 넘는 게 좋을 것 같소.”

외숙부의 입에서 서동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오자 선화 공주는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편으로는 외숙부가 서동을 ‘젊은이’라거나 ‘총각’이라 부르지 않고 ‘공자’

거열(居列) : 거창의 옛 이름. 신라가 건국되었을 무렵부터 거열 또는 거타라 불렸는데, 제35대 경덕왕 때 ‘거창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라는 호칭을 쓰자, 그 마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동으로 인하여 나라 안이 시끄러워졌고 선화 공주가 부왕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을 생각하면 외숙부가 서동에 관해 나쁘게 말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조카의 마음을 짐작하여 서동을 공자라고 높이 칭하여 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궁성을 나와 그곳까지 오는 동안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서동의 얼굴이 그 순간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선화 공주는 서동을 떠올리며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외숙부는 선화 공주가 시녀인 미아와 봇짐을 지고 따르는 늙은 여사부만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국왕제²⁶대 진평왕의 명을 거역하고 선화 공주를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조카를 조금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외숙부는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같은 국왕이 내린 처분을 잘 알고 있는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선화 공주의 일행은 날이 저물고 나서야 거열 고을에 겨우 들어섰습니다. 근처 냇가에는 벼드나무가 한가로이 늘어서 있었고, 마을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을 입구에 지방 향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궁중에서 쫓겨나 귀양길에 오른 이 희한한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서였습니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저를 따르시지요.”

향리가 인사를 올린 뒤 앞장을 서며 말했습니다.

선화 공주는 눈인사를 하고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녁 즈음이라 옹기종기 모인 집들의 모양새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거열은 신라와 백제 틈바구니에서 종종 전쟁터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보고 선화 공주는 한때 그곳이 피로 물든 전쟁터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흙다리를 건너 방죽으로 올라서자 이곳저곳 불빛이 흘러나오는 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밤중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소?”

뒤따르던 여사부를 돌아보며 선화 공주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많이 힘들 텐데 짐을 들고 따르는 여사부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미아는 선화 공주의 목소리가 가라앉기는 했지만, 여전히 은 쟁반에 또르르 구르는 옥구슬처럼 맑고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물녘에 낯선 고을을 찾아들 때 갖게 되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선화 공주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졸지에 자신을 따르게 된 미아와 여사부도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미아는 언제나처럼 쾌활했고, 여사부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잘 해쳐 나가겠다고 다짐이라도 하듯이 다리를 꿰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사부는 주름살이 깊고 수염이 듬성듬성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사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장정 두어 명쯤은 언제라도 거뜬히 무찌를 수 있을 만큼 용맹하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허리춤에 몽둥이를 꿰차고 있으니, 여차하면

칼을 대신해 쓸 수도 있었습니다. 벼락 맞은 박달나무를 깎아 만든, 작지만 매우 단단한 봉등이였습니다.

선화 공주가 진평왕의 노여움을 사서 궁성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어머니 마야 왕비가 충직한 미아와 여사부를 선화 공주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미아는 선화 공주가 어릴 적부터 데리고 있던 아이였고, 여사부는 마야 왕비가 궁중으로 시집올 때 함께 데려왔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마야 왕비는 아쉬울 때 팔아 쓸 수 있도록 금붙이며 보석이며 귀한 장신구들을 챙겨 주었습니다.

다행히 지방 관장과 향리들이 서라벌에서 온 선화 공주 일행의 숙식을 마련해 주긴 했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그 외 다른 것은 절대 묻지도 않고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피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궁중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송구스러운 일이기도 하려니와, 선화 공주 일행이 거열 고을

에 들어선 것 자체가 뭔가 꿩꿍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눈
치채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거열산성

밤도둑처럼 거열 고을에 들어선 지 사흘째 되는 날, 저
녁 무렵이었습니다.

선화 공주 일행은 보기에는 일반 가옥처럼 생긴 관아의
별채에 묵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여사부는 숟가락을 놓
기가 바쁘게 고을 상황을 살펴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런저런 사람들에게 귀띔해 들은 대로, 신라와 백제를 갈라
놓고 있는 산성을 멀찍이서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신라와 백제는 오래전부터 영토 다툼으로 크고 작은 전
쟁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나라가 접한 국경 근처에
는 산성을 높이 쌓아 두었습니다.

국경 지역에 속한 거열 고을에서도 백제군을 막기 위해
높은 산성을 쌓아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산성의 이름
이 거열산성이었습니다.

고을을 적시는 냇가를 따라 길게 나 있는 길은 상류 쪽

이 마리와 위천 땅으로 이어져 백제 영토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하고 있는 길이다 보니, 경비가 더욱 삼엄했습니다. 만약 일반 백성이 그 길을 몰래 넘어갔다가 발각이 되면 **치도곤**을 맞고 감옥살이를 할 것입니다.

궁성을 나올 때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국경에 와 보니 생각이 많아진 선화 공주였습니다. 국경을 무사히 넘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백제에서 적국의 공주라는 사실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망신이 어디 있을까요?

선화 공주의 마음이 아무리 서동에게 향해 있다 하더라도 아바마마를 욕되게 하고 나랏일을 망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여겼습니다.

오늘 낮에도 여사부는 마을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장사치 흥내를 내며 국경 너머 백제로 넘어갈 방도를 염탐해 보았습니다.

치도곤 :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의 하나.

그러나 길에서 만난 장사치들은 다들 이맛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보시오, 다른 곳 사람이라 모르는가 보군요. 요즘에는 오가는 발걸음이 뚝 끊어졌다오.”

“아시겠지만, 우리 국왕이 남산성을 새로 쌓으면서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했잖소. 저 나라라고 팔짱만 끼고 있겠소? 당장 성을 보수하고 경계를 더욱 늘렸다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접경 지역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할 수가 없소.”

여사부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선화 공주를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드디어 귀가 솔깃한 방책을 하나 얻었습니다.

“글쎄요. 여간 급한 게 아닌가 보군요. 굳이 가야 한다면 한밤중에 산성 성벽을 타고 넘는 게 그나마 감시를 피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거요.”

그날 밤 선화 공주는 여사부를 따라 거열산성이라 부르는 성벽 가까이 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선화 공주 일행은 머물고 있던 별채를 조용히 벗어

났습니다. 그리고 산성으로 가는 길목인 옹기 마을을 지나 ‘생이등골’이라는 바위 밑에 다다랐습니다.

‘생이등골’은 바위의 모양이 장례 때 쓰는 **상여**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이곳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부엉! 부엉!”

바위 밑을 지날 때, 밤 부엉이 울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여사부가 선화 공주를 돌아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씨, 여기서 기다려 주소서. 마침 달이 구름에 가렸으니 저 혼자 몰래 숨어 보고 오겠습니다. 가파른 길이기는 하나 반 **마장** 거리밖에 안 되는 듯하옵니다.”

여사부는 선화 공주에게 허락을 구한 뒤 어깨를 움츠리고 어둠의 장막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상여 : 거창 사투리로 ‘생이’라 발음한다.

마장 : 거리의 단위. 오 리나 십 리가 못 되는 거리를 말한다.

밤 서리가 내리기에는 이른 철인데도 미아는 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부엉이 소리에 아까부터 겁을 집어먹어 절로 오금이 저리고, 괜히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돌아보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자니, 달을 가렸던 구름이 벗겨지면서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선화 공주는 구름을 탓하기보다 밭을 재빨리 놀려 구름을 벗어나는 달을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저 달같이 내달릴 수라도 있다면 좀 좋으랴.”

혼잣말이려니 싶어서 미아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화 공주도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 쑥스럽기도 해서 혼자 더 깊은 생각에 파묻혔습니다.

‘왜 신라와 백제는 이처럼 사이가 좋지 못한 걸까?’

선화 공주는 덕만선덕 여왕의 아명 언니가 들려준 그 옛날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옛날 아달라왕^{신라의 제8대 왕} 시절에 길선이란 자가 역모를 꾀하다가 실패해 백제로 달아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라에서 죄인을 벌하려고 길선을 보내 달라고 백제에 요



구했지만, 백제가 이를 듣지 않아 이때부터 급격히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쳤다면 좋았으련만 백제 초고왕^{백제의} 제5대 왕 때는 백제가 신라 서쪽 변경을 침공하여 몇몇 성을 차지한 데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공격을 해 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 눌지왕^{신라의} 제19대 왕 때는 고구려가 백제를 치는 바람에, 백제가 다급히 신라와 동맹을 맺어 맞섰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관계가 그나마 회복이 되었고, 그 후에 나제 동맹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복잡한 생각이 풀리지도 않았고 시원한 해답도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나와 서동이 좋은 인연으로 맺어져 두 나라가 가까워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화 공주는 가능성의 별로 없어 보이는 희망을 잠시나마 가슴에 품어 보았습니다. 그때 가까이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 선화 공주의 마음을 다시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사부는 밤이 깊어서야 선화 공주와 미아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두 사람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랬는지, 여사부는 머릿수건을 벗고 뜰을 들인 다음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한밤중이라면 경비병의 눈을 피할 수는 있겠으나, 성벽이 높아 타고 넘기가 쉽지 않겠사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계책을 궁리해 봐야 할 듯싶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그중 제일 나은 편이라 하지 않았소?”

“병사들이라면 출사다리 같은 것을 타고 어찌 올라가 볼 수도 있겠지만…… 아기씨와 미아에게는 아무래도 힘에 겪

을 것 같사옵니다.”

여사부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지라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되돌려 관아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살기 좋은 거열

거열이란 고장은 산으로 에워싸인 무척이나 아늑한 분
지입니다. 서쪽에서 동으로 내가 흐르며, 고을 하류 쪽으
로 넓은 들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넓은 들녘을 이곳 사
람들은 ‘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농산물이 두루 풍부하다 보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예부
터 살 ‘거居’ 자를 붙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신라와 백제가
이 지역을 포기하지 못하고 분쟁이 잦았던 것도 어쩌면 당
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화 공주는 태어나서 서라벌 도성을 떠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시골이 낯설었습
니다. 그런데 하루 이를 지내다 보니, 저절로 정이 들게 되
었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으로 이런 고장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백성의 삶에 대해, 또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선화 공주는 거열 고을 사람들도 불교를 숭상하여 여러 곳에 절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라는 일이 있거나 마음에 번뇌가 차오를 때 자주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선화 공주는 흐뭇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불경을 외었습니다. 불현듯 서동이 승려 차림을 하고 서라벌 거리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라 혼자서 살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너댓새가 지나자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가 관심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선화 공주는 여염집 아가씨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얇은 담장 너머로 환히 드러나는 그 뛰어난 용모를 가릴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귀한 처녀가 서라벌에서 몸종들만 데리고 이 고장에
는 무슨 일로 왔답니까?”

“필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담장 안을 힐끔거리며 선화 공주 일행을 두고
숙덕거렸습니다.

일찍이 선화 공주의 아름다운 자태는 나라 안은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와 백제에까지 널리 알려져서 뭇 귀공자
들의 연모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백제의 청년 서동이
목숨을 걸고 서라벌로 숨어 찾아온 것도 그러한 까닭이었
습니다.

“아기씨, 아무래도 숙소를 옮겨야 할 것 같사옵니다. 작
지 않은 고을에 소문이 벌써 쳐 퍼졌답니다. 관아 별채에
예사스럽지 않은 분이 묵고 계시다면서 숙덕거리기를 그치
지 않나 봅니다. 이 안마을 북쪽 한 마장 거리에 갈마리라
는 작은 촌락이 있사옵니다. 농삿집에 거처할 곳을 알아두
었습니다. 그리로 옮겨 간다면 남의 눈에는 덜 뛸 듯하옵
니다.”

여사부가 다른 거처를 알아보고 와서 선화 공주에게 아

뢰었습니다.

앞뒤를 재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화 공주는 자주 얼굴을 내밀던 향리에게 거처를 옮기겠다는 뜻을 넌지시 전했습니다.

안마을의 굴뚝마다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참에 세 사람은 짐을 챙겨 관아 별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돌담을 돌아 동구 밖으로 향했습니다.

야트막한 재를 하나 넘어 숨을 돌릴 정도가 되자 농삿집 옆 몇 채가 띠엄띄엄 늘어선 촌락이 보였습니다.







사랑 찾아 천리길





가랑잎이 소슬바람에 후르르 흘날리는 산속에서는
이따금 고라니며 멧돼지가 기척을 하곤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와 친구들과 고국 땅을 떠난
심란함이 가슴에 사무쳤지만
서동은 선화 공주를 만날 일을 떠올리며
앞으로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를 캐는 아이

백제 도성 부여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쪽
못가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는 산에서 마를
캐어다 팔아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젊은이를 아잇적 귀여운 이름으로 ‘맛동이’라 불렀습니다.
마를 캐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는
‘마’가 한자로 마 ‘서薯’ 자이므로 ‘서동薯童’으로 불렀습니다.
고작 마를 캐러 다니는 평범하고 가난한 젊은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서동이 다른 집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굴이 희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것은 타고난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 쓰임이 깊고 도량이 넓어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있는 것이 여느 아이와 달랐습니다.

“참, 뉘 집 자식인지 탐이 나네그려.”

“장차 이름난 장수나 왕이 될 재목이야. 나는 딸이 있다면 당장 사위 삼고 싶네.”

마을 사람들은 침이 마르도록 서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서동의 출생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받아 내려온 신선이 아닐까?”

아버지가 없는지라 믿기 힘든 소문이 크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못에서 나온 남자

서동이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어느 저녁나절 서동의 어머니는 하릴없이 마루 끝에 앉아 있다가 못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뭐지?’

어머니는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면서 못

에서 솟구친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못 은 이내 잠잠해져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어머니는 볼을 꼬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라앉을 즈음에 허우대가 좋은 한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생판 낯설기도 했습니다.

“뉘, 뉘신지요?”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남편을 몰라본단 말이오?”

“당신이 어떻게? 참말로 서방님이 맞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젊은 아내를 두고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허참! 남편을 보고도 왜 그런 얼굴이오? 그동안 세상나 들이를 실컷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오.”

긴가민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남편이 틀림없는지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자 남편은 그 밤에 왔던 것처럼 홀연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곰곰 생각해 보니 전날 밤 찾아왔던 사람은 저세상에서 살아 돌아온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못 속에서 산다는 용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다녀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어머니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동이 태어났습니다. 서동이 워낙 영민하고 기품이 있는지라 이웃 중에는 용의 소생이라는 말을 믿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미륵산에서의 다짐

여름이 한풀 꺾이던 어느 날, 서동은 평소에 뜻이 맞아 자주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과 행장을 차려 미륵산으로 갔습니다.

“서동아, 이따 나하고 한판 불자. 저번 날에는 내가 너한

테 졌지만 오늘은 어림없을걸.”

친구가 행장에 끼고 온 목검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중 더러 몇 명은 아직도 맛동이라 부르지만, 대부분은 이제 서동이라 불렀습니다. 친구의 호언장담에 서동은 그저 짐잖게 한 번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마나 돼지감자만 캐는 게 아니라 산을 쏘다니며 체력을 단련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목검을 휘둘러 보거나 활을 쏘며 무예를 익히기도 했습니다.

신라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용사를 양성하기 위해 이전부터 원화를 장려해 왔었는데, 근래에는 이를 화랑 제도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일단 화랑도에 들어가려면 문벌이 있는 집안 출신이어야 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덕행이 있는 소년이어야 했습니다. 듣자 하니, 화랑도들은 명산대천을 순례하며, 무사도 정신을 갈고닦는 일에 전력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임금과

원화 : 신라 때에,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익히며 예절과 무술을 닦던 청소년 단체. 또는 그 우두머리.

나라를 위하여 전장에 나아가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백제에도 신라의 화랑과 같은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신라와 전쟁이 났을 때 그와 같은 대비 태세가 없다면 맞서 싸워 이길 수나 있을까?’

서동은 마를 캐고 먹고사는 일에만 관심 두는 게 아니라 나라의 먼 앞일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더 불어 심신을 연마하여 위기가 닥치면 나아가 싸울 때를 준비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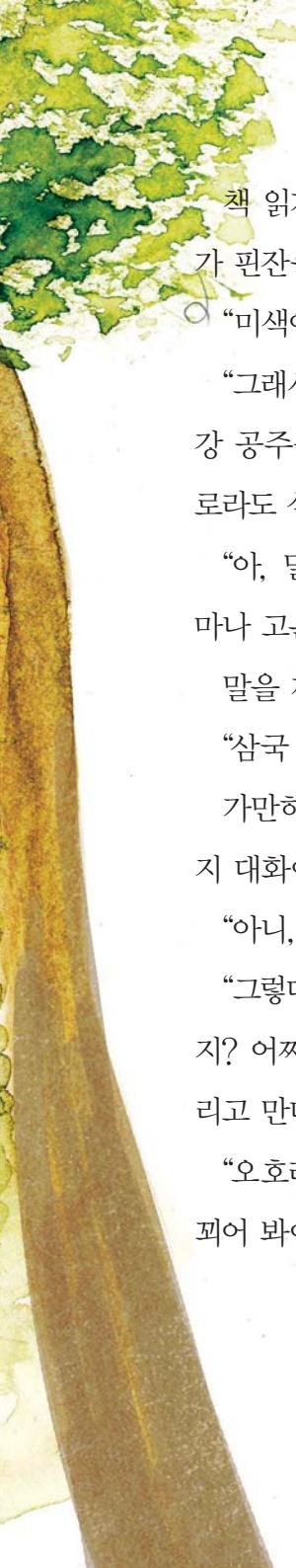
서동이 이런 호국의 열정에 휩싸여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산마루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 무슨 바람이 들었던지 친구들이 장난 삼아 신라 서라벌 궁중에 사는 공주를 화제에 올렸습니다.

“진평왕은 슬하에 딸만 두고 있는데, 그 셋째 딸 이름이 선화 공주라는 걸 자네들도 들은 적 있겠지?”

아버지가 궁성 경비대 사령을 맡고 있어 이런저런 소식에 귀가 밝은 젊은이가 잘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얼씨구, 갑자기 남의 나라 공주 얘기는 뭐야?”





책 읽기를 좋아하여 ‘골샌님’이란 별명을 가진 글방 친구가 핀잔을 주며 말했습니다.

“미색이 그 이름처럼 예뻐 천하일색이라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저 고구려의 바보 온달이 평강 공주를 얻어 장수가 된 것처럼 너도 선화 공주를 색시로라도 삼겠다는 거야?”

“아, 말도 못하나? 어떻든 삼국 제일의 미녀라잖아. 얼마나 고운지 한번 보고 싶단 말이지.”

말을 꺼낸 친구가 제법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국 제일의 미녀가 자네를 마음에 들어 하겠나?”

가만히 대화를 듣고 있던 서동도 슬슬 호기심이 생겼는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신라 공주 미색이 그렇게 빼어나단 말이야?”

“그렇대도. 용모뿐만 아니라 자태 또한 비할 데가 없다지? 어찌나 고운지 달밤에 핀 연꽃도 무색해서 고개를 돌리고 만다네.”

“오호라! 그렇게 아리따운 공주라면 이 맛동이가 가서 꾀어 봐야겠군.”

“꿈도 야무지군. 군자는 모름지기 자기 처지를 살피고
뒷날을 도모하는 법이거늘.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
라는 옛 격언도 모르는가?”

친구가 매몰차게 몰아대는 통에 서동은 평소 같지 않게
객기가 솟구쳤습니다.

“친구들, 두고 보라고. 내 기회를 봐서 서라벌로 넘어가
선화 공주를 얼러 아내로 삼고 말 테니까! 공을 들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잖아. 허풍이 아니라고.”

한번 내뱉은 말은 꼭 지키는 서동이라 그쯤 되니 친구들
도 더는 빈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글쎄, 서동은 한번 하겠다면 꼭 하는 녀석이니 믿어 볼
만도 하지.”

“그럼그럼! 북방의 온달 장군은 세상에 제일 못난 추남
이었어도 평강 공주를 아내로 얻었지 않은가. 온달에 비하
면 서동의 외양과 기상은 매우 준수하지. 물론 고구려의
평원왕보다 신라 진평왕의 그릇됨이 작다면 얘기가 또 다
르겠지만…….”

온달 장군과 평강 공주

고구려 온달 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백제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여서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바람 따라 물길 따라 훌러 들어온 이야기에 의하면 전혀 터무니없지도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평강 공주는 어려서 시도 때도 없이 잘 울었나 봅니다. 특하면 눈물바람이요, 한번 울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모와 시녀들이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어 대는지 부왕인 평원왕과 왕비가 장난 삼아 이렇게 으름장을 놓곤 했답니다.

“공주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장차 저 못생긴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보내겠다. 그래도 좋으냐?”

온달이라는 사내는 용모도 볼품없는 데다 바보처럼 언제나 실실 웃으며 다녔답니다.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손가락질하며 놀려 대도 순하디순해서 그저 당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다 쓰러져 가는 초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홀어머니를 봉양하는 정성만큼은 겨우하고, 심성 하나만은 고와 남한테 이용을 당하면 당했지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공주야, 계속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낼 테다!”

평강 공주는 자라면서 이 말을 수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서 울음을 뚝 그치곤 했지요.

어느덧 평강 공주가 장성하여 시집을 갈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지체 높은 집안의 공자들이 남편감으로 오르내렸





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평강 공주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저의 배필은 온달님이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시집을 가지 않겠사옵니다. 아바마마와 어마마마께서 어릴 적부터 저한테 늘 말씀하시길, 온달님에게 시집보낸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동안 내전에서 놀림을 하도 받아서 그 섭섭함으로 심통을 부리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철딱서니 없는 투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평강 공주의 막무가내가 진심이고, 어떤 까닭이든 간에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알고 평원왕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겁도 주고, 구슬려도 보았지만 평강 공주는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평원왕도 평강 공주의 고집에 져서 이 희한한 혼인을 성사시켰답니다.

사실 철없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평강 공주에게는 따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온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온달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보는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평생 노총각으로 늙을 줄 알았던 온달은 이렇게 평강 공주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온달은 평강 공주의 격려에 힘입어 무사가 되기 위해 말 타기와 활쏘기를 배우고 하루도 쉬지 않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고구려 풍속으로 3월 3일에는 낙랑 언덕에서 국왕과 대신이 관전하는 가운데 젊은 용사들이 무예와 수렵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이날 온달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한

껏 기량을 뽐내었습니다. 이로써 국왕의 신임을 얻고, 북주 **중국**가 침략했을 때도 국왕의 곁을 지키며 큰 전공을 세웠다 합니다. 하지만 영양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에 온달 장군은 신라에게 빼앗긴 계림현과 죽령을 되찾고자 출병 했다가 한산주 부근 아차성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온달에 얹힌 기이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선에서 온달 장군을 장사 지내려 했을 때 관이 꿈쩍도 하지 않아 장병들이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온달 장군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달려온 평강 공주가 관을 쓰다듬으며 위로를 하자 그제야 관이 움직여 무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승려로 변장한 서동

온달 장군과 평강 공주의 이야기까지 더해지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경 포구에서 고기잡이 배 여러 척을 거느린 것같 장수 집안의 아들인 친구가 빼기듯 말했습니다.

“어이, 맛동 장군. 내가 자네 후원자가 되겠네. 신라로 가는 노자 걱정은 말고 자네 운을 한번 시험해 보게나.”

우스개 반 진심 반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제법 진지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서동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서동의 가슴속에도 뜨거운 불씨 하나가 심겨졌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서동의 가슴에 심겨었던 불씨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배필은 신라의 선화 공주야. 내 한 번도 선화 공주를 본 적이 없지만 이리도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전생에서 만난 인연이거나 하늘이 점지한 운명이 틀림없어.’

한편으로는 세상에 살지도 않은 사람을 뜬소문만 믿고 빠져든 것은 아닌지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런 염려와 의심이 들수록 무슨 일인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미륵산에 같이 올랐던 친구들도 서동이 언제쯤 선화 공주를 만나러 신라로 떠날지 궁금해하는 듯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서동이 혀튼소리를 할 위인은 아니기에 이제나저제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동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 속에 간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괴이쩍다 싶더라도 야단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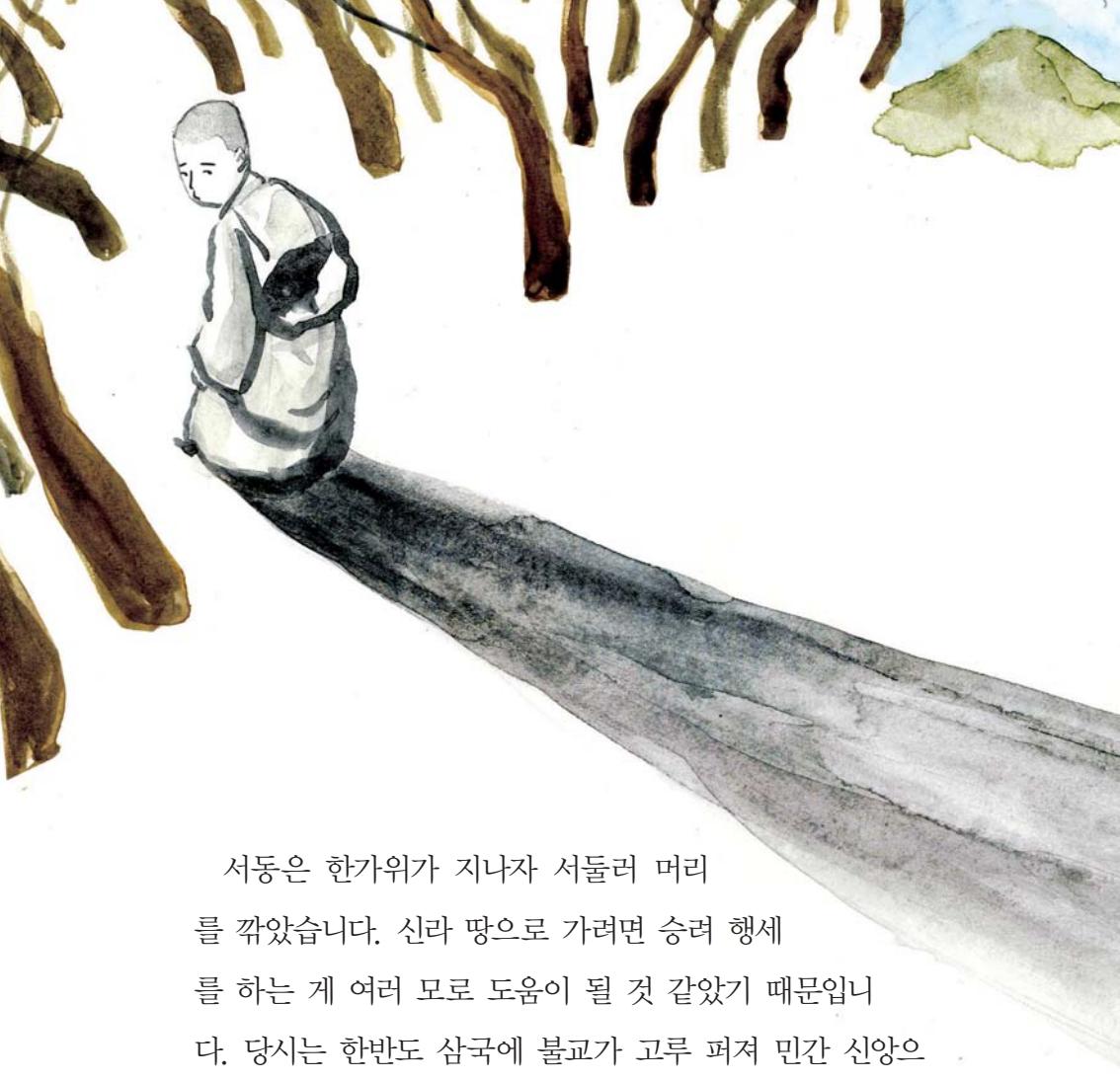
서동은 이렇게 운을 떼고는 신라 궁중에 사는 선화 공주를 아내로 맡기 위해 신라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깊은 속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정신 차려라 말하지 않고 긴 한숨만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자가 기이한 팔자를 타고났구나.”

자식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을 읽어 냈기 때문입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구나. 그 또한 도리가 없는 일 아니겠느냐. 아무쪼록 신령한 힘이 널 도와 뜻을 이루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아들을 믿어 주는 어머니의 이 말이 서동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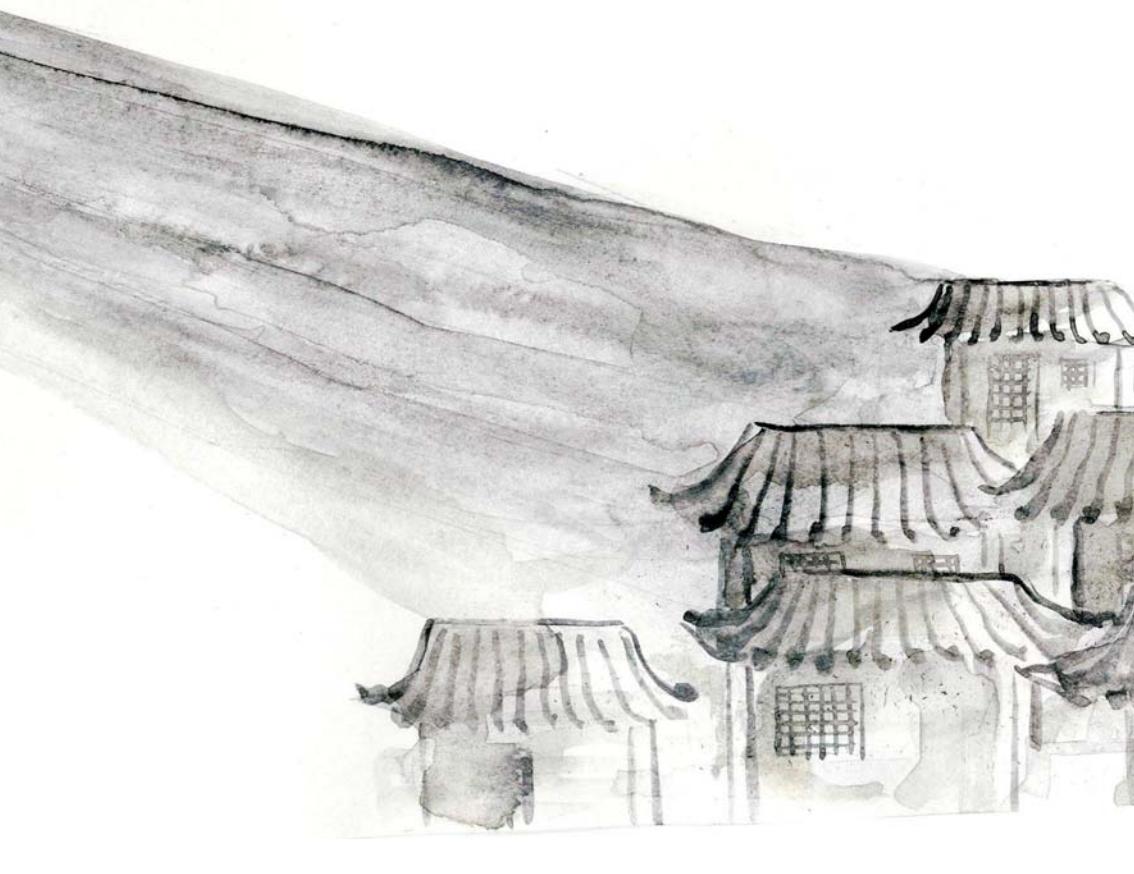


서동은 한가위가 지나자 서둘러 머리
를 깎았습니다. 신라 땅으로 가려면 승려 행세
를 하는 게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
다. 당시는 한반도 삼국에 불교가 고루 퍼져 민간 신앙으
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신라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
불교를 더욱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신분 제도에서도 성골,
진골 등의 왕족 다음으로 승려를 높이 받들었으므로 승



려 행세를 하면 홀대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
니다. 말끔하게 삭발을 하고 승려들이 입는 장삼을 걸치자
서동의 모습은 의젓하면서도 학식이 풍부해 보였습니다.

집을 떠나던 날, 서동은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고, 섬
돌을 내려서서는 국왕이 거처하는 사비성을 향해 역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백제와 신라가 씩 친밀하지
못한 이때 신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려 가는 것에 대
해 백제 왕께 조용히 허락을 구했습니다.



‘신이 이제 국법을 어기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국왕께 불충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는 두 나라가 화친하여 온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두루 평안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미력하나마 나라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경을 넘어 신라로

서동은 부여를 뒤로하고 부지런히 걸어 논산 땅을 거쳐 금산 땅에 들어섰습니다.

백제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새로운 기운이 넘쳐 세력이 사방으로 뻣어 나갔습니다. 시조 온조왕은 한강 북부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뒤 중심 세력을 갖지 못한 여러 부족 국가들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이로부터 남쪽으로 차츰 세력을 넓혀 근초고왕 [백제의 제 13대 왕](#) 때에는 북으로는 낙랑군을 차지하고, 남으로는 옛 마한 땅을 수중에 넣어 굳건한 자주 국가의 위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삼국 간의 잦은 전쟁으로 백제는 점점

쇠약해져 북쪽의 옛 도성 일대와 국경의 동쪽 땅까지 신라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서동이 살던 무렵에는 더욱 위세를 잃은 상태였으나, 수년간 내륙까지는 큰 화가 미치지 않아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고는 있었습니다.

신라와 맞닿은 국경이 가까워오자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 남쪽 합천 땅의 대야성을 두고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지라 북쪽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길이 양쪽 수도를 바로 잇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늦가을 날씨가 한결 쌀쌀해졌을 무렵, 서동은 국경 지대인 주치령 등성이에 올라 신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치령은 워낙 험산인 데다 오솔길조차 없는 탓에 경비가 허술하여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가랑잎이 소슬바람에 후르르 흔날리는 산속에서는 이따금 고라니나 멧돼지가 기척을 하곤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와 친구들과 고국 땅을 떠난 심란함이 가슴에 사무쳤지만 서동은 선화 공주를 만날 일을 떠올리며 앞으로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서동을 만난 선화 공주





선화 공주님은 남 그즈기 얼어두고
맛동방을 밤에 몰 안고 가다



진평왕의 세 딸

신라 궁성이 자리 잡은 서라벌은 화평한 시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기운이 활짝 편 데다가, 제17대 내물 왕 때부터 김씨 성의 왕위 세습이 확립되어 조정이 큰 분쟁 없이 안정된 까닭입니다. 이를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진평왕은 여러 해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 나갔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중국을 지배해 온 수나라가 망하고 새로이 당나라가 세워지면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혼란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관직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혁하며, 무엇보다 백성이 살기 편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진홍왕대에 짓기 시작한 황룡사 창건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궁중의 내전도 평온할 때들이었습니다. 마야 왕비는 성품이 온후하고 슬기로웠습니다. 지아비에게는 상냥하고 자식에게는 자상하여 현모양처의 모범이 될 만했습니다. 단지 슬하에 왕자를 얻지 못하고 공주만 여럿 둔 것이 섭섭하게 여겨졌으나 그 또한 부처님의 뜻이려니 하며 한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째 공주 덕만선덕은 매우 영특하여 장차 왕위를 물릴 만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나라에서 우호의 표시로 보내온 물품 중 모란꽃 그림이 한 폭 있었습니다. 내전의 귀한 부인들이 앞다투어 그 그림을 들여다볼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덕만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림에 나비가 없으니 이 꽃에는 향기가 없나 봅니다.”

과연 화려한 꽃인데도 나비가 없는 것이 기이했습니다. 부인들은 짧은 동안 그림의 특징을 깨뚫어본 덕만 공주의

영민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당나라에서 어찌하여 향기가 없는 모란꽃을 보내온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둘째 천명 공주는 품성이 착하고 정이 많은 데다 손재주가 많았습니다.

공주들 중에 용모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셋째 선화 공주였습니다. 용모가 꽃과 같이 예뻐서 온 나라는 물론 이웃 나라에까지 멀리 소문이 났습니다.

첫 만남

이처럼 나라 안팎이 두루 안녕한 시절에 삼진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음력 3월 3일은 홀수 일수가 겹치는 길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계절로 보아 겨울 동안 웅크리고 있던 생물이 활기를 띠며 새싹이 트는 시기여서 예부터 사람들이 생기를 회복하는 날로 삼아 왔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이날 옛집을 다시 찾아온다고도 합니다.

서라벌 사람들은 이날 교외로 나가 동쪽에서 흐르는 낯 물에 겨울 동안에 낀 때를 씻고, 약수를 떠 마시면 한 해를 병 없이 넘긴다고 믿었습니다. 집집마다 진달래 꽃잎을

넣어 예쁜 화전도 부쳐 먹었습니다.

이 절기를 앞두고 궁성에서는 마야 왕비가 진평왕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폐하, 삼진날에 공주들이 야외 들놀이를 나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들놀이라…… 좋은 생각이오. 삼진날 같은 좋은 절기에 는 왕실 가족도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해야지요. 새 봄의 활기를 얻기 위해 하루 동안이라도 궁중에서 벗어나 바깥바람을 쐬고 오십시오.”

진평왕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삼진날이 되자 공주들은 한껏 들떠서 저마다 말이 끄는 수레에 시녀를 거느리고 올라앉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공주들 중에서도 선화 공주의 매력적인 자태는 갓 피어난 꽃봉오리가 시샘을 할 정도였습니다.

산과 들에는 봄이 성큼 자리를 평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으로는 산수유 꽃이 노랗게, 산벚나무 언저리에는 연한 분홍색이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들녘에서는 자줏빛의 작은 제비꽃을 비롯하여 갖가지 풀꽃들이 하얀 꽃술을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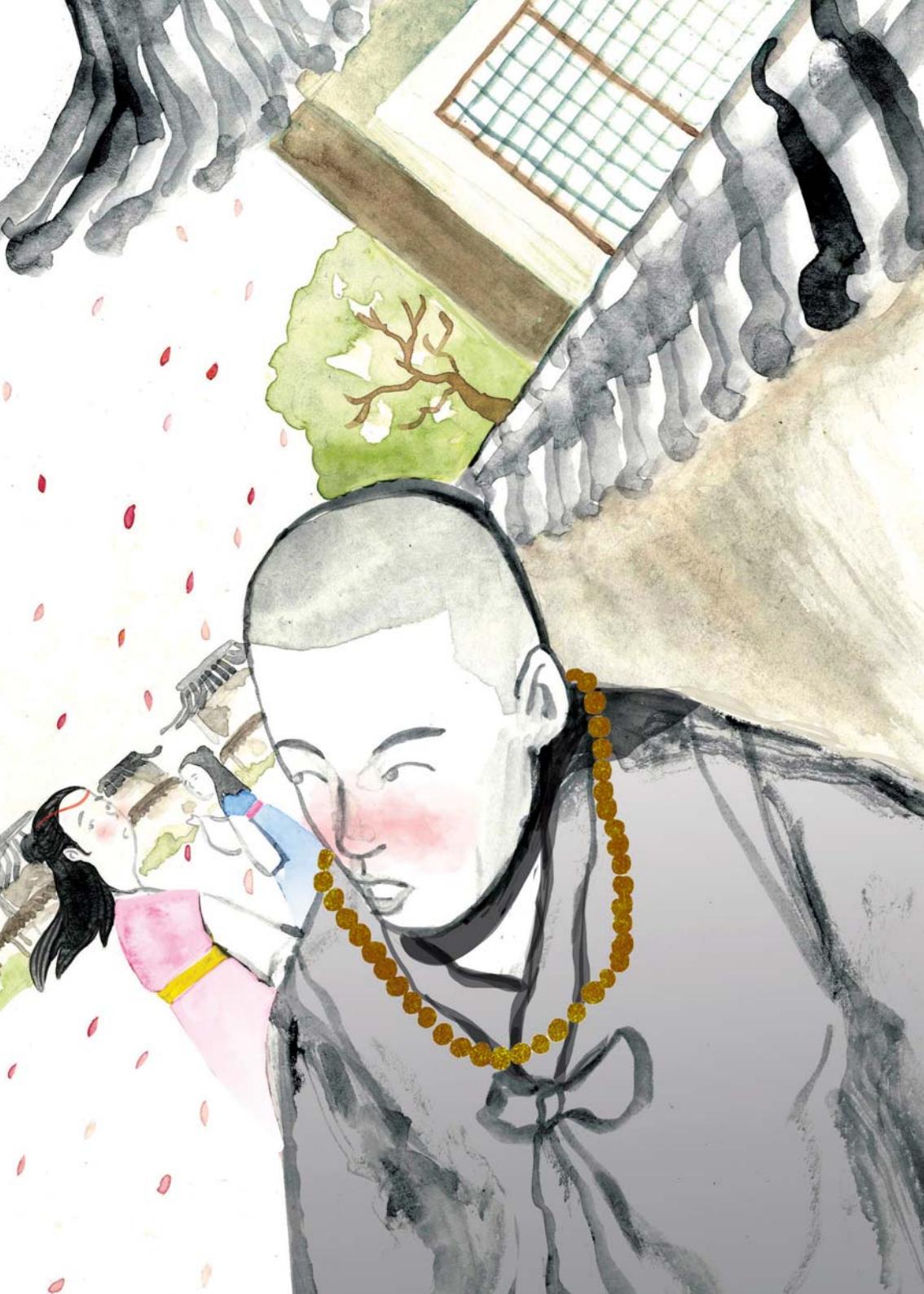
피어 올리는 참이었습니다.

이날 궁중 가족들은 풀밭에서 점심을 먹은 뒤 구슬놀이도 하고 살촉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들뜬 까닭인지 웃음소리가 시종일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공주들도 수레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대지의 돋아나는 풀을 밟음으로써 새생명의 기운을 접하는 것이 예부터의 풍속이었습니다. 10만여 호 기와집이 늘어선 서라벌 도성으로 공주 일행이 막 들어선 참이었습니다.

선화 공주는 시녀 둘을 거느리고 둘째 공주인 천명 공주의 뒤를 따르다가 길모퉁이에서 장삼을 걸친 젊은 승려와 마주쳤습니다. 승려는 목탁을 두드리며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선화 공주가 무슨 소리인가 싶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승려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공주마마는 중생의 연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무명이 둠을 끊어 깨달음을 얻으소서.”

시주승의 흔한 덕담이라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 선화 공주는 남의 눈을 헤아려 볼 짬도 없이 젊은 승려를 향해 방긋 웃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이 멈추어진 것도



이상했습니다.

젊은 승려는 선화 공주를 보며 준비라도 한 듯이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공주마마는 이승의 등불이옵니다. 무상을 넘어 진리에 이르옵소서. 나무아미타불!”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선화 공주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승려이기는 하나 마치 발이 땅바닥에 얼어붙은 듯 꿈쩍할 수가 없었고, 가슴이 쿵쾅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큼 걸어가던 천명 공주가 그제야 뒤를 돌아보고는 이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화야, 왜 거기 그리고 서 있니?”

선화 공주는 천명 공주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 이를 어쩐담. 내가 어쩌자고…….’

선화 공주는 황황히 걸음을 빨리하여 일행에 따라 붙었습니다. 머릿속이 멍멍하다 못해 조금 전에 벌어졌던 일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녕 그 한순간 무엇에라도 훌렸나? 하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걸. 그 눈동자, 그 얼굴, 늠름한 자세……. 비록 승려이긴 하지만 잊을 수가 없구나.’

그날 밤, 선화 공주는 자신에게 새로이 다가온 운명에 이미 온 마음을 빼앗겼음을 알았습니다.

한편 숙소에 돌아온 서동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꿈에서도 그리던 선화 공주를 잠시나마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렬결에 떠밀린 듯이 무슨 말을 건넸을 때 선화 공주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관세음보살의 미소였습니다. 솔직히 서동 자신도 말을 건네던 순간은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을 건넸을 때는 선화 공주가 어떤 응답을 해 주었는지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아니, 그렇게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주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그동안 기다려 온 분이 스님이란 말입니까? 스님이

라면 평생을 부처님께 바치셨을 터인데, 장차 우리가 무엇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선화 공주의 미소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 밤 내내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선화 공주는 내가 승려인 줄 알 텐데 이 일을 어이할꼬.
이럴 줄 알았다면 승려가 아닌 평범한 남자로 나타날 걸
그랬나? 휴, 거짓 스님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런 쓸데없는
고민까지 하게 되는구나.’

나중에는 이런 자책까지 하며 자신을 혹독하게 꾸짖기
도 했습니다.

‘그토록 순수하고 깨끗한 공주를 피어 보겠다
고 속임수를 썼으니, 아무리 자비가 넘치는
부처님일지라도 용서치 않을 거야. 만





약 선화 공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천만년 이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야 할 거야. 부처님께 죄를 지었으니 나로서
는 할 말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동의 가슴에는 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머릿속에는 한층 고상한 상념이 자리를 잡았습
니다. 사랑을 함에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법이며
신분이며 국경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화 공주는 여느 사람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내전에 살

기 때문에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짹이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에 잠겨 보기도 하고 계교를 꾸며 보기도 했지만 그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름이었습니다.

선화 공주 역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겨 벼려도 그만이었으나 밤새 눈앞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스친 인연일 뿐이야.”

밤의 정적이 더해 갈수록 남자의 첫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의젓할까? 아무리 축수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무엄하게 왕녀에게 말을 붙이다니! 그래도 어느 한군데 책망을 할 데가 없었지. 아, 뭐라고 했더라?’

선화 공주는 서동이 한 말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공주마마를 뵈옵고자 천 리 길을 달려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주마마를 만나고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이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전생에 우리는 마주 보는 두 별이었지만 이승에서는 무
엇으로 만나게 되오리까?”

이런 말을 전해 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선화 공주는 밤의 휘장 속에서 까만 눈동자를 멀뚱멀뚱
뜬 채 여러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얼굴 한번 마주친 사람을 두고 이렇듯 애면글면하다니!
내가 공주의 체신을 잊고 이게 뭐람!’

선화 공주는 이런 자책을 끝으로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
니다.

단오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월 단오가 되자 서라벌은
한껏 들떴습니다. 단오는 홀수가 겹치는 날이고, 1년 중 양
기가 가장 왕성한 때라 ‘천중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남자들은 너나없이 교외로 나가 천변에서 씨름을 겨루
고, 부녀자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 타기를
즐겼습니다. 또 이날은 ‘수릿날’이라고도 하여, 쑥잎과 쌀가
루를 반죽하여 수레바퀴 모양으로 둥글넓적하게 떡을 만

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이날 서동은 궁중 식구들이 계림_{鷄林}에서 열리는 그네 타기 경연을 구경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화 공주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계림으로 찾아 갔습니다.

계림은 신라의 세습 왕족인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터라 하여 예부터 상서로운 숲으로 받들어지는 곳입니다. 김알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탈해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4대 국왕인 탈해왕은 어느 날 밤 시림_{始林} 숲 쪽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이 한밤중에 웬 닭이 저리 시끄럽게 우는 게냐? 당장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탈해왕의 명을 받고 신하가 시림으로 달려가 보니, 나뭇 가지에 금빛 궤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신하가 궤짝을 내려서 보니 놀랍게도 웬 사내아이가 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바로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입니다.

김알지의 7세손이 신라의 제13대 미추왕으로 왕위에 올

랐는데, 이로부터 김씨가 계속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김 알지를 처음 발견한 숲 이름도 닦 ‘계鶴’ 자를 써서 ‘시림’에서 ‘계림’으로 바꿔었답니다.

단옷날 계림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궁중 식구들이 계림에 들어서자 경비병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 도저히 경비병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서동은 선화 공주의 얼굴을 면발치에서나마 보고 싶었지만 삼엄한 경계 탓에 한 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처럼 우연히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목을 쭉 빼고 한참 동안 궁중 식구들이 있는 쪽을 살피던 서동의 눈에 멀리서도 눈에 쏙 들어오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바로 선화 공주였습니다. 선화 공주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리따운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굴 찾는지 아까부터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겠으나 눈짓을 주고받을 수는 있을 듯했습니다.

‘아, 선화 공주구나! 저기 있었어.’

서동은 **바랑**을 바짝 둘러메고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스님! 스님이라고 해도 더는 앞으로 못 갑니다. 물러서십시오.”

경비병이 서동의 앞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서동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선화 공주가 얼굴을 돌려 서동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동을 발견하고는 아까부터 찾고 있었던 것처럼 매우 반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화 공주가 방긋 웃지는 않았습니다. 생긋도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뚫어져라 서동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잠시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나 서동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네 타기가 끝날 때까지 서동은 선화 공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선화 공주도 흘끔 흘끔 서동을 훔쳐보았습니다.

바랑 :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처럼 생긴 큰 주머니.

머리꾸미개를 건네다

그네 타기가 끝나자마자 궁중 식구들이 자리를 뜰 차비를 하였습니다.

“선화야, 어서 가자꾸나.”

마야 왕비가 멍하니 서 있는 선화 공주를 불렀습니다. 선화 공주는 이대로 궁중으로 들어가면 언제 또 서동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마야 왕비를 따라 걸음을 옮기던 선화 공주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린 것처럼 불현듯 서동이 있는 쪽을 향해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쓸 것인지 섬섬 옥수 어여쁜 손으로 머리꾸미개 하나를 빼서 손에 쥐었습니다.

선화 공주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법도에 어긋난다는 것, 혼인을 하지 않은 왕녀가 외간 남자에게 소지품을 넘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았습니다. 어머니인 마야 왕비는 물론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호수에 던져지면 일파만파 파문이 번져 나가

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이 앞으로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지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화 공주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화 공주는 부산스러운 틈을 이용해 한 젊은 승려에게 다가갔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선화 공주의 걸음을 쫓던 서동은 갑자기 선화 공주가 자신을 보고 똑바로 걸어오자 만천하를 얻은 듯 두 눈이 환해졌습니다. 향긋한 향기가 코끝을 간질이는가 싶더니 섬섬옥수 고운 손이 쑥 나와서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공양입니다. 받으셔요.”

선화 공주는 자신의 머리꾸미개를 서동에게 보시를 했습니다. 작년 생일에 이찬 벼슬 집안으로 시집간 이모가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반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머리꾸미개를 받은 서동은 매우 당황하여 그만 입이 납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시 :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다.



이어서 낭랑한 음성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스님은 어디서 온 뉘신지요?”

선화 공주가 그대로 걸음을 돌리지 않고 물어왔습니다.

서동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소승은 백제 땅 부여에서 온 서동이라 하옵니다. 공주 마마를 사모하여 천 리 길을 마다 않고 국경을 넘어왔사옵니다.”

꼭 알자고 물은 게 아니라 흔한 인사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동은 무엇 때문인지 곧이곧대로 진심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듣는 귀가 적잖은데 이 얼마나 가당찮고, 상식을 뛰어넘는 무례함인지 분간조차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뜻이 참으로 가상하오만…… 어찌…….”

선화 공주는 말끝을 맷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더는 말을 잇지 않고 몸을 휙 돌려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천명 공주가 또 보았고, 이날 나들이를 같이 한 마야 왕비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아니, 셋째가 어찌 저런 행동을 하는 게지? 생전 저런 일이 없는데 도대체 영문을 모를 일이구나.’

마야 왕비는 속으로 걱정을 했지만 달리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명 공주는 지난 삼진날의 광경이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 있었으므로 심상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선화가 뭔가에 단단히 씌었구나. 저 암전하던 아이가 어찌 저런 행동을 스스럼없이 한단 말인가? 전날에는 그냥 넘겼지만 오늘 보니 보통 일이 아니야. 어떡하지? 어마마마한테 말씀드려야 할까?’

한편 서동은 단옷날 어떤 강력한 화살이 자신의 심장에 꽂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여에서는 젊은 혈기로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삼진날 선화 공주를 처음 만났을 때도 품성이 상냥한 공주의 온정 탓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림에서의 만남으로는 서로가 운명으로 강하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빛도, 행동도, 마음도 다 진실이었습니다. 결코 충동적인 행동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지은 서동

단오가 지난 뒤 서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묘책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섬돌 아래 바위를 뚫는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서는 선과 악이 따로 없고,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높은 궁중 담벼락 안에 사는 선화 공주를 배필로 맞아들일 좋은 방책이 없을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퍼뜩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옛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서동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서동이 생각한 방법은 바로 노래였습니다.

‘그래, 노래를 지어 사람들에게 퍼뜨려 보자. 노랫말이라면 외기 좋아 사람들 입에 쉬 오르내리지 않겠는가? 도성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면 궁중에도 전해져 국왕이나 왕비의 귀에 들어가겠지. 어떻게 지어야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갈까? 선화 공주와 인연이 맺어지도록 신통한 힘을
발휘할 만한 노래여야 할 텐데…….’

당시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들
여온 한자를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무렵에는
쉬운 방편을 찾아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우리말로 나타내
는 이두_{吏讀}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서동도 쉽고 흥미로운 이두의 용법에 끌려 틈틈이 배우
고 익혀 보았습니다. 서동은 평범한 사람들도 널리 아는
이두 글자로 노랫말을 짓기로 했습니다.

‘좋은 노랫말이 없을까?’

몇날 며칠 서동은 앉거나 눕거나 서 있거나 노랫말을 계
속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선화 공주와 자기 사이에 부부의
연이 있다고 소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황당무계하고 선화
공주의 명예를 해치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동은 그 정도 내용은 되어야 남말 하기 좋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옮길 것이고, 궁중 담벼락을 타
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궁리 끝에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선화 공주님은 남 모르게 시집을 가서
밤이면 맛동 서방을 몰래 암아 보고 간다.

아무래도 지나치게 노골적인 데다 음탕한 모함이어서
순수하고 어여쁜 선화 공주한테 크게 해를 끼칠 것 같았
습니다.

선화 공주님은 넌지시 방을 얹어놓고

첫 구절을 이렇게 고쳐 보았습니다. 이것도 꾸며 낸 말
치고 민망한 내용이다 싶었습니다. 또 너무 직설적인 내용
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오기도 하려니와 사람들이
오래 되작일 맛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읊조릴수록 감칠맛이 나야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담긴
뜻을 애돌아 표현하여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보자 싶었습
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구미를 동하게 하는 쪽으로 나타내
는 게 중요했습니다.

문득 미륵산에서 친구들에게 ‘서라벌로 넘어가 선화 공

주를 얼러 아내로 삼고 말 테니까!”라고 큰소리를 친 게 떠 올랐습니다.

남 모르게 얼어 두고

‘이 정도라면 어떨까?’

‘얼어 두고’는 ‘얼러 볼’이란 말과 뜻이 살짝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두 용법으로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기에 안성맞춤이다 싶었습니다. 둘째 줄도 알쏭달쏭하게 달리 표현해 보았습니다.

도성 안에 울려 퍼진 노래

계절이 산마를 캐기 좋은 때였습니다. 서동은 인근 산을 오르내리며 마를 캔 뒤 바랑에 넣어 서라벌 저자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시장 근처에는 도성 아이들이 몰려나와 무슨 재미난 일이 없을까 하고 하루 종일 목을 빼고 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서동은 그런 아이들에게 산마를 깎아서 공짜로 나눠 주



며 은근슬쩍 자기가 만든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원하고 사박사박하게 씹히는 마를 얹어먹는 데다 노래까지 배워 부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싶었을 것입니다. 코흘리개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도령까지 골목골목을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선화 공주님은 남 그즈기 얼어두고
맞동방을 밤에 몰 앤고 가다



이 노래가 바로 서동이 며칠 밤을 새워 가며 만든 **서동** 요였습니다.

노래는 삽시간에 서라벌에 꽉 퍼졌습니다. 아이들 부르는 노래처럼 짧은 데다 노랫말도 흥미롭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낮이고 밤이고 노래를 불러 대던 통에 서라벌 성문 밖으로도 흘러흘러 전해지곤 했습니다.

여염집 처녀나 아낙네는 세상에 이렇듯 영문 모를 속닥 거림이 또 있으랴 싶었을 것입니다. 뜬소문에 귀를 쫑긋 대는 여인들이라면 노랫말에 그럴싸한 사연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지나자 궁중에도 노래가 전해졌습니다. 서라벌 성문도 넘어가는 노래이니, 궁중 담벼락은 삼엄한 경비병만 없었으면 진작에 넘었을 것입니다.

서동요 :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향가로, 백제 사람 서동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진평왕의 분노

여름 더위가 기웃거릴 무렵, 신라 궁정은 일찍이 들어본 적도 없던 일로 속을 끓이게 되었습니다. 왕실에 먹칠을 하려는 누군가의 소행인지 뜬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요사스러운 승려가 나타나 풍속을 해치려고 드는지 뜬소문으로 민심까지 크게 술렁였습니다.

진평왕이 노여운 음성으로 어전에 엎드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무엄한 노릇이 또 있단 말이오? 경들도 귀가 있으니 들었을 것이오.”

“황공하옵니다만 신들도 그 소문을 듣고 참으로 요망한 자의 소행이라 생각했사옵니다.”

“하늘이 내려앉는데도 이처럼 놀라지 않겠소. 짐도 이 망측한 사연을 듣고 내전에 물어보았소. 대답인즉, 공주 신분으로 세간의 사내와 어찌 정을 통할 수 있겠느냐며 펄쩍 뛰더이다. 소문의 진원이라는 그 승려가 누구인지는 알 아냈소? 듣기로는 어디서 온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들었소만.”

왕의 불편한 심기를 헤아리고 붉은 홍포를 입은 **이벌찬**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입에 조차 올릴 수 없는 소문이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 은밀히 조사해 보았는데, 비방을 작심한 요망한 승려 하나가 노래를 퍼트려 놓고는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하옵니다. 폐하 앞에 차마 얼굴을 들기가 민망하옵니다.”

이벌찬은 말을 마치고 머리를 땅에 닿도록 조아렸습니다. 진평왕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 끊어올랐던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차분히 명을 내렸습니다.

“왕실의 구설수라 해서 쉬쉬하거나 민망해할 뿐인 것은 신하의 올바른 도리가 아닐 것이오. 어찌해야 도성의 민심이 수습될지 묘안을 생각해 오시오.”

신하들은 매우 황공스러워하며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뭉그적대고 있을 일도 아니네. 어서 좋

이벌찬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첫째 등급. 자색 관복을 입었다. 진골만이 오를 수 있었다.

은 묘안들을 찾아보세.”

중신들은 오랫동안 논의를 한 뒤, 다시 진평왕 앞에 나아왔습니다.

“청컨대 폐하께서 당사자이신 선화 공주님께 소문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도리밖에 없사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속담대로,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옵니다. 폐하께 신하 된 자로서 이런 말씀을 올리기가 진정 어려운 일이나 결자해지밖에 방법이 없겠사옵니다. 통촉하소서.”

왕실을 궁지로 몰아갈 여지가 있었으나 진평왕은 신하들의 충언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신라는 나라를 처음 세울 때부터 ‘화백 제도’에 따라 나랏일을 여섯 촌의 부족장이나 진골 이상의 귀족이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나온 결정은 국왕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결자해지 : 맷은 사람이 그것을 둔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짐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궁중 내전의 문제로 경들을
곤란에 처하게 할 수는 없겠소. 짐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
니 그만 물러들 가시오.”

진평왕은 그길로 내전에 들러 선화 공주를 불렀습니다.
마야 왕비와 다른 공주들도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공주는 지금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답하여라. 조금이라
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네, 아바마마.”

“무슨 일로든 간에 그 맛동인지 서동인지 하는 승려와
만난 적이 있더냐?”

“그러하옵니다.”

진평왕의 물음에 선화 공주는 거짓 없이 대답을 아뢰었
습니다.

“자초지종을 곧이곧대로 말하라.”

“저번 삼진날 성내에서 잠시 얼굴이 마주쳤사옵니다. 그
리고 단오에 계림에 나갔을 때에도 지척에 있음을 알고 소
녀가 머리꾸미개 하나를 공양했사옵니다. 그뿐이옵니다.”

선화 공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으로 아바마마의 화를 돋우거나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물쩍 피하지는 않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공주의 처신 치고는 참으로 괴이찍어 선조를 대할 면목이 없구나. 규중의 처자라 하더라도 몸에 지닌 것을 외간 남자한테는 주지 못하는데, 어찌 궁중의 왕녀가 그런 상스런 짓을 했더란 말이냐? 마야 왕비는 어쩌자고 이런 사태에 이르도록 방심했던 말이오?”

진평왕은 급기야 곁에 있던 마야 왕비를 책망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는 상관이 없는 일이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일러 따랐을 따름입니다.”

선회 공주는 불똥이 괜히 마야 왕비에게 튀자 다급히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도리어 진평왕의 화를 돋우고 말았습니다.

“듣자 하니 더욱 고약하지 않나? 마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보니 그 뜨내기 사내와 눈이라도 맞았다는 게냐? 참으로 그런 말이냐?”

“…….”

“다시 묻겠다. 공주가 그 승려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냐?”

선화 공주는 입이 쉬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바마마께 말씀드리기에는 황송하기 짹이 없사오나 그 스님이 제 마음을 이미 불들었사옵니다. 향간에 떠도는 노랫말은 어쩌면 소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미리 밝혀 준 듯싶사옵니다.”

선화 공주의 당돌한 대답에 진평왕은 처음에는 어안이 병벙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나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 슬하의 누구보다 애지중지한 선화 공주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말았다는 생각에 분하고 섭섭한 마음이 열 갑절은 되었습니다.

“방금 한 대답에 네 인생이 달린 줄을 분명 알렸다?”

“알고 있사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소녀가 어릴 적에 진심의 움직임을 거역치 말라고 늘 가르쳤사옵니다. 비록 그 분이 백제에서 온 사람이나 소녀의 진심은 흔들리지 않사



옵니다.”

“허허, 내 일찍이 고구려 궁성의 황당한 이야기를 강 건 너 볼 보듯 했더니 내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더냐. 더구나 너는 신라 사내도 아니고 백제 사내를 마음에 두었다니 이런 통탄할 일이 또 있을까! 성골 핏줄로서도 참혹한 일이로다. 이후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왕실의 체통을 손상했으니 죄를 물어 궁에서 내쫓을 것이야. 너는 이로부터 죄인이다. 당장 궁성을 나가도록 하여라. 왕비께서도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 법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진평왕은 겉잡을 수 없는 분노로 몸을 떨며 기어이 돌이킬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폐하! 제발 명을 거두소서. 선화 공주가 아직 철이 없어 그런 것이니 저를 봐서라도……”

마야 왕비가 진평왕을 붙잡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평왕은 명을 거두지 않고 그길로 내전을 나서 버렸습니다.

궁성을 나온 선화 공주

그날 밤 내전에 선화 공주는 사랑하는 어머니 마야 왕비와 다른 공주들과 모여 앉았습니다. 졸지에 이별을 하게 되어 마음이 참담하고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물도 앞을 가렸습니다.

마야 왕비가 침통한 음성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화야, 네 속마음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바마마 앞에서는 달리 아뢰었어야 마땅했다. 도대체 이 무슨 **업보**란 말이냐? 내 너를 궁에서 내보내고 나서 하루라도 편히 지낼 수 있겠느냐? 폐하께서도 마찬가지시다. 너를 애지중지 얼마나 예뻐하셨느냐. 부모에게 네가 얼마나 큰 불효를 하였는지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라. 또한 어디 가서 살든지 부디 몸조심하여라. 어미로서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못내 원통하구나.”

마야 왕비의 타이름에 이어, 보위를 이을 덕만 공주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업보 : 전생에 지은 죄.

“선화야, 지금은 아바마마의 노여움을 사서 내쫓기는 몸이 되었으나 넌 성골의 피를 이어받은 귀한 신분이자 우리의 형제임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터이니 행여 원망하는 마음일랑 품지 말고 품성을 거스르는 처신은 삼가도록 해라. 꼭 명심하여라.”

천명 공주는 선화 공주의 손을 다정하게 쥐었습니다. 천명 공주는 평소에도 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선화 공주에게 그간에 일어난 일을 누구보다 이해하였기에 가슴에 천 물결 만 물살이 일렁이었을 것입니다.

“선화 너의 진심을 나는 누구보다 이해해. 선화야, 운명을 탓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도리어 행복에 이를 때가 올 거야. 내 말뜻을 알겠지?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고는 참았던 눈물을 그예 똑똑 떨어뜨렸습니다.
가을 하늘이 아스라이 높아지고 들녘에서는 풍년이 들어 나라 안이 노래와 춤으로 술렁이던 때에 선화 공주는 궁중에서 내쳐진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이별하게 된 것이 몹시 슬펐으나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

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사이 서동이 진평왕을 피해 백제로 돌아갔을 것이기
에 선화 공주는 백제까지 서동을 무작정 찾아가기로 결심
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야 왕비의 너른 품을 떠나 무거
운 발걸음을 서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
습니다.



아홉산의 비





아홉산에는 멀쩡한 날에도
소나기가 자주 떠부어,
산등성이 이름을 소나기가 잣은 영마루,
즉 '취우령'이라 불렀습니다.



몸져누운 선화 공주

갈마리 촌락은 뒤쪽으로 아홉 개의 산이 병풍을 두르듯
둘러 있고, 남향으로는 손바닥만 한 천수답이며 밭뙈기가
농가 주위로 흘어져 있는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이렇게 붙은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날 신라와 백제와의 싸움에서 한 화랑이 거열산성에 급히
말을 타고 다녀와 이곳에서 말 먹일 물을 찾았다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가 가뭄철이었는지 물이 없어 말이 갈증

천수답 : 빗물에 의하여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

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마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지명을 한자로 바꾸면서부터는 이름을 ‘가지리加旨里’라고 하였습니다.

선화 공주 일행이 갈마리로 옮겨 갔을 때에는 집 앞으로 도량물이 흐르고 미나리꽝도 있어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성싶었습니다.

아침나절에 보니, 가을걷이가 끝난 눈에서 목 깃털이 검은 두루미 한 마리가 논고동이나 미꾸라지를 쪼는지 긴 다리를 이리저리 내디디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질 무렵에 남쪽 나라를 찾아오는 나그네새인데, 이따금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누구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양 같았습니다. 어쩌면 선화 공주의 마음이 그리움으로 가득 차 그리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화 공주 일행은 점심을 먹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백제로 넘어가기가 그중 가장 낫다는 아홉산의 지형을 살피러 기슭을 올랐습니다. 경사지는 넉넉하고 평펴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러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뜨내기의 움막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큰 산

자락에 아홉 골짜기가 있다 하여 ‘구곡곡九曲谷’으로도 부르는가 봅니다.

집을 나설 적에는 가을 날씨답게 하늘이 드높고 파랬는데, 저녁 무렵에는 예상치 못했던 소나기가 한 줄금 그었다가 이내 그쳤습니다. 그러나 옷이 축축하게 젖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선화 공주의 예쁜 입술이 퍼렇게 되더니 급기야 온몸을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여사부는 자칫 선화 공주에게 병이라도 날까 싶어 얼른 산을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를 이겨 내지 못하고 어떻게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소? 팬찮소, 부산을 떨지 않아도 되오.”

선화 공주는 말은 이렇듯 강단 있게 했지만 뚝 떨어진 기온에는 버텨 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선화 공주는 촌락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이마에 열이 높고 한기가 드는지 방구들에 군불을 팬 지 한참이 지나도록 이불을 포개 덮어쓰고 기침을 해 댔습니다. 집주인은 귀한 집 따님이 고생이 많다며 더운 꿀물을 타 오는 인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오늘 산행으로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이 그다지 높지는 않고, 산등성이 너머 백제 국경 지대에는 감시의 눈길이 그나마 소홀한 듯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기만 한다면 덕유산 깊은 골짜기를 통해 백제 땅 내륙으로 들어가기가 한결 쉬울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을 지내고서 선화 공주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여사부는 하루를 더 넘겨 보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의원을 불러오든지, 달 구지라도 빌려서 거열 고을로 모셔 가야겠다고 생





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에 들떠 있는 중에도 선화 공주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남의 이목을 끌게 될 일은 삼가 주시오. 이런 몸살 하나 견뎌 내지 못한대서야 저 부여까지 천 리 길을 어찌 가겠소?”

“건강만 좋으시다면 만 리인들 걱정이겠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니 작은 우환이라도 얼씬거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하루를 더 지나자 열은 조금 내렸지만 얼굴에 울긋불긋

한 점이 돋았습니다. 항간에서는 열꽃이라고도 하는데, 몸을 잘 보살피면 점이 사라지면서 몸살기도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선화 공주는 몸져누워 있으면서 서동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서동은 서라벌 궁성에서 그 노랫말을 퍼뜨린 장본인을 수색한다는 기미를 알아차리고는 명을 보존할 수 없겠다 싶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한마디 말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간 그 심정을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분 곁에 가고자 하는 내 의지를 막진 못할 거야. 아, 그분이 불가에 입적한 스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냐.’

아픈 몸임에도 서동을 떠올리면 없던 힘이 솟구치는 듯했습니다.

아홉산을 넘지 못하고

선화 공주는 닷새를 앓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아가 끓여 온 미음을 목에 넘기면서 고소하다고 칭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마치 자기 잘못이나 되는 양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궁금증이 컷지만 나중에는 행여나 여리디여린 아기씨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선화 공주는 나흘을 더 집 안에 머물면서 기운을 되찾고, 이제 바깥나들이를 할 만하자 톳마루로 나가 앉았습니다.

그때, 거열 고을의 향리가 궁중에서 온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향리는 선화 공주의 얼굴이 핼쑥해진 것을 보고 그동안 몸져누워 있었음을 짐작했습니다.

“저희로서야 윗분에게 상세하게 다 알리는 게 도리인 줄 압니다만…….”

향리의 설레발에 여사부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어찌 한 치 앞만 본단 말이오? 우리 사정은 저 궁성에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오. 공연히 소란을 일으켜 곤란을 자초하지 마시오.”

여사부의 단호한 말에 향리는 알아들은 양 어벙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선회 공주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겨울이 가까워 오고, 더 지체했다가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성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맞자마자 여사부에게 채근을 하였습니다.

“여사부, 오늘 밤에는 기필코 산을 넘도록 하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경계를 넘어가서 죽을 것이오. 차 일피일해서 될 일이 아니오.”

“무슨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옵니까? 소인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주마마의 뜻을 받들어 안전하게 백제 까지 모시겠사옵니다.”

그날 저녁에 일행은 짐을 챙겨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오솔길로 삽정이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무꾼이 보였습니다.

산기슭을 오르자 산토끼들이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냅뛰는가 하면, 굴로 챙싸게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곳 산에는 가막살나무가 많은데 넓적한 잎들은 이미 갈잎으로 말라들었습니다.

“공주마마, 혹시 어지럽지는 않사옵니까?”

미아가 걱정을 떨칠 길 없어 종종 따라오며 선화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도리어 몸이 가벼워져 걷기가 편한걸.”

대답은 이렇게 했으나 사실은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아 니나 다를까, 산을 반도 못 올라 콧잔등에 땀방울이 맺히 고 머리가 어질어질하였습니다.

“공주마마,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여사부가 눈치껏 살피다가 쉴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저 아래로 안마을의 불빛이 아스라하게 비치는 게 눈에 들어 왔습니다.

얼마나 더 올랐을까? 산에서 사는 산토끼며 다람쥐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반갑잖은 훼방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탓인지 이곳 기후 역시 이들에게 전혀 곰살 맞게 굽어 주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서녘 노 을이 물들락 말락 하던 마른 날씨였는데, 느닷없이 또 굽 은 빗방울이 후두둑 갈잎을 두드렸습니다. 빗줄기는 시시 각각 그악스러워져 세 사람이 금세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사부는 자기 신분으로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왕녀의 모습을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선화 공주를 우선 급한 대로 바위 아래 움푹 들어간 자리에 들어앉게 했습니다.

미아가 보통이에서 덮을 만한 천을 찾아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선화 공주의 몸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악화될 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여사부 입장에서 보자면, 아침에는 진심으로 공주마마의 뜻을 받들겠다고 약조를 했지만 이러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만 같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공주마마, 다른 날을 기해야겠습니다. 천기를 거스를 수는 없사옵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도 정작 선화 공주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는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만 있었습니다. 앞뒤를 짤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목숨을 구해 놓고 나서 대사를 도모해야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어서요.”

아무런 기색이 없자 여사부는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는 듯 선화 공주를 들쳐 업었습니다. 일행은 걸음을 다잡아 산을 내려와 민가로 되돌아왔습니다.

삼경이 지난 듯했습니다.

모두 뜬눈으로 열이 높은 선화 공주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 이런 참담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산골 외딴 마을에서 의원을 어떻게 찾아요?’

미아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여사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밤은 또 왜 이리 긴지 시간을 단단한 줄에 묶어 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아는 어려서부터 모셔 온 선화 공주 곁에 딱 붙어 앉아 밤새 물수건을 적셔 열을 내리게 하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여사부가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선화 공

삼경 :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셋째 부분.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공주마마, 소인의 말하는 소리가 들리옵니까?”

그렇지만 선화 공주는 정신이 혼미한지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가 봅니다.

“공주마마, 공주마마…….”

미아도 울먹이며 선화 공주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선화 공주는 옆에 들떠 헛소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룻밤이 더 지나서야 선화 공주는 가까스로, 아주 쇠약하나마 기척을

하였습니다.

“여사부, 여기가 어디오?”

선화 공주가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신라 땅인 것을 알아챘는지 매우 낙심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왜 돌아왔단 말이오? 내가 죽더라도 저쪽으로 넘어가서 죽겠다고 하지 않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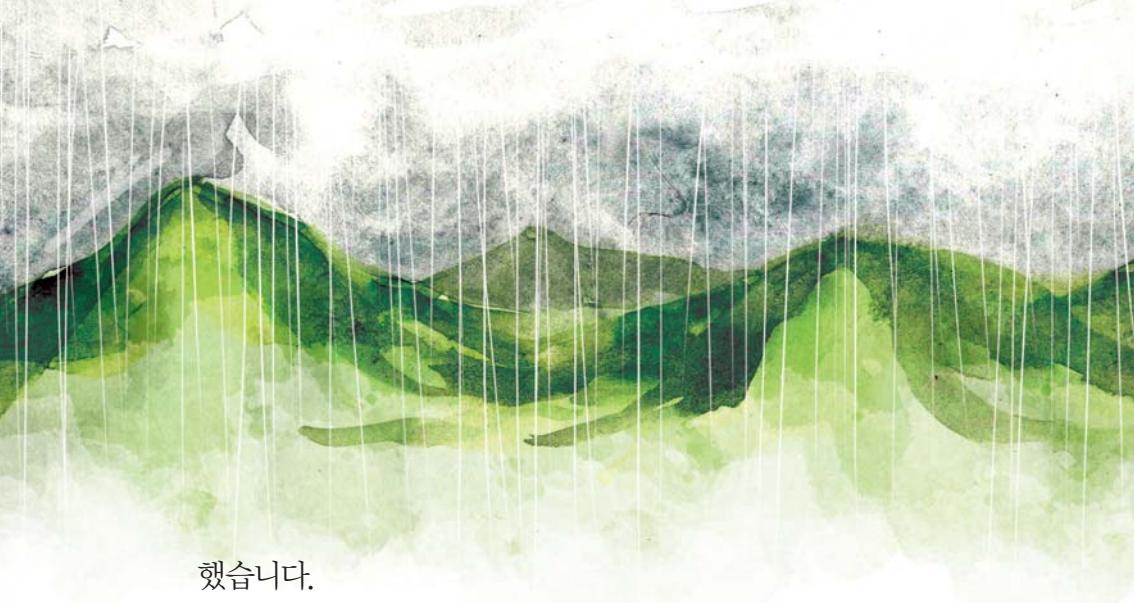
여사부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어찌 소인이 그것을 모른단 말이옵니까? 그렇더라도 소인에게 가장 중한 것은 공주마마의 건강이옵니다.”

선화 공주는 그 대답을 듣고 그만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운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본 두 충복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아무런 차도가 없이 병은 더 위중해지는 듯했습니다. 목이 부어올라 떠 넣어 주는 미음도 넘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마다 일을 내고 말 것 같다면 끌탕을 쳤습니다.

날이 환히 밝은 때에 선화 공주는 겨우겨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아야, 집 앞 논에…… 지금도 두루미 한 마리…… 날
아와 있느냐? 혹시 서쪽으로…… 날아갔느냐?”

미아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얼굴을 푹 숙이고 말
았습니다.

오후에는 뜻밖에도 기운을 차렸는지 선화 공주가 두 사
람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부여에 들어가는 건 한낱 꿈
이었나 봐. 나는 영영 몸을 추스르지 못할 모양이야.”

미아는 마냥 흐느끼고, 여사부도 고개를 돌리고는 뜨거
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흔절한 채 누워 있던 저녁나절, 선화 공주는 잠시 정신



이 깨어난 듯했습니다.

“꿈에서…… 그분을 보았어요. 그분은…… 용무늬가 수 놓인 자리 위에…… 앉아…….”

그리고는 뒷말을 더 잊지 못하고 뚫어져라 시골집 서까 래만 올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촉촉한 눈망울은 촛불 이 스러지기 전에 한 번 크게 불꽃을 일으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말이 선화 공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취우령에 깃든 애달픈 사연

해가 뉘엿뉘엿할 즈음, 창백한 얼굴의 선화 공주는 그 고운 눈을 다시는 뜨지 못하였습니다.

물색 모르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가을, 저 서라벌

궁중의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던 공주가 변경의 호젓한 촌락에서 쓸쓸히 생을 거두었습니다. ‘물색 모르는’이란 말은 틀린 말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애달픈 죽음인지라 하늘도 외면하지 못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후 거창 고을 사람들은 완만한 기슭을 드러내는 아홉 산을 무심코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홉산에는 멀쩡한 날에도 소나기가 자주 퍼부어, 산등성이 이름을 갑작스러울 ‘취^暉’ 자에 비 ‘우^雨’ 자를 넣어 소나기가 잦은 영마루, 즉 ‘취우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장의 많은 사람들은 취우령에 비가 내릴 때마다 선화 공주의 한 맷힌 눈물이 소나기가 되어 쏟아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